

- 주요 뉴스: 미국 섯다운에 따른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지연, 연준 정책의 예측 가능성 저해
 - 연준, 정책 불확실성 등이 금융안정 위협. 경기 둔화 위험 의견도 제기
 - ECB 엘더슨 이사, 경제 성장 위험은 일부 완화. 영란은행은 12월 금리인하 예상
 - 중국 10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상승 불구 다플레이션 우려 지속. 수출은 역성장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증시 고평가 및 고용 둔화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AI 거품 논란, 일부 저조한 경제지표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지수는 기술주 고평가 가능성, 미국 증시 영향 등으로 1.2%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10월 일자리 감소, 11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 부진 등을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3%, 0.4%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중장기물 및 회사채 공급 증가 전망 등이 배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3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2.0% 상승, 한국 CDS 상승

		11/7일	10/31일	전주말대비			11/7일	10/31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6,728.8	6,840.2	-1.63%	국채 금리 10y	미국	4.10%	4.08%	+2bp
	유럽	564.79	571.89	-1.24%		독일	2.67%	2.63%	+3bp
	중국	3,997.6	3,954.8	+1.08%		영국	4.47%	4.41%	+6bp
	일본	50,276	52,411	-4.07%	CDS 5y	한국	23bp	22bp	+1bp
	한국	3,953.8	4,107.5	-3.74%		중국	43bp	40bp	+3bp
	달러지수	99.60	99.80	-0.20%	위험 지표	EMBI+	284	272	+12bp
환율	유로화	1.1566	1.1537	+0.25%		VIX	19.08	17.44	+9.40%
	엔화	153.42	153.99	+0.37%		WTI유	59.75	60.98	-2.02%
	위안화	7.1221	7.1194	-0.04%	원자재	구리	495.7	508.9	-2.59%
	원화	1,461.5	1,433.0	-1.95%		금	4,001.3	4,002.9	-0.0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섯다운에 따른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지연, 연준 정책의 예측 가능성 저해

- 11/13일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공개될 예정. 하지만, 연방정부 섯다운 등으로 정상적인 발표 여부가 불확실. 섯다운 기간 동안 관련 데이터 수집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13일 이전에 섯다운이 종료된다고 가정해도 정상적인 CPI 발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이와 같이 공식적인 주요 경제지표의 발표 지연은 연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 다만, 시장에서는 10월 헤드라인 CPI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이 각각 2.9%, 0.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Bloomberg). 근원 CPI는 3.0%, 0.2%로 추정. 이는 12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 또한 11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에서 응답자의 향후 고용 관련 우려가 증가했음을 고려한다면 최근 고용 여건은 대체로 부진한 상황으로 판단. 이 또한 12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지지. 다만 확장적 재정정책, 무역 불확실성 감소, AI 확산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은 향후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리인하 필요성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관측
- CME의 FedWatch는 연내 1회(12월 0.25%p), 내년 2회(4월 및 7월. 각 0.25%p)의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정책 불확실성 등이 금융안정 위협. 경기 둔화 위험 의견도 제기

-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정책 불확실성(세계무역, 중앙은행 독립성, 주요 데이터의 부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전반적인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 은행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레버리지 증가는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
-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소득 격차와 이에 따른 저소득층 중심의 소비 부진으로 경기 둔화 위험에 직면해있다고 지적. 한편, 단기 자금시장에서 유동성은 기대하는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
- 제퍼슨 부의장은 금리가 중립 수준에 근접했기에 향후 추가 금리인하에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 반면, 마이런 이사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확산되면 대출 가능 자금이 증가하기에 연준에 대한 금리인하 압력은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

■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경제에 미치는 섀다운 영향은 당초 예상보다 심각

- 해시 위원장은 섀다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평가. 다만 섀다운이 해소되면 경제는 신속하게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라고 기대. 한편,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효과로 1인당 2000달러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다양한 형태로 실현 가능하다고 발언

■ ECB 엘더스 이사, 경제 성장 위험은 일부 완화. 영란은행은 12월 금리인하 예상

- 엘더스 이사는 역내 경제 성장 위험이 일부 완화되었다고 평가. 다만 전반적인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 한편 Morgan Stanley, UBS, Citi 등은 영란은행이 12월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 중국 10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상승 불구 디플레이션 우려 지속. 수출은 역성장

-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비 0.2% 올라 6월 이후 첫 상승 전환. 이는 국경절 연휴에 따른 소비 증가에 기인하지만, 관련 효과는 단기적 현상으로 추정.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동월비 2.1% 떨어지는 등 하락세 지속. 이에 시장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다고 평가
-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1% 줄어 8개월 만에 감소 전환. 이는 미국과의 무역긴장 고조,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에 따른 결과. 수입의 경우 1.0% 늘었지만 이전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 한편, 상무부는 '26년 11월까지 희토류 및 주요 광물의 수출 통제 강화가 중단된다고 발표. 이는 미국과의 '무역 휴전'을 위한 구체적 조치의 일환

■ 일본 9월 실질가계소비, 전년비 증가. 10월 세계식량가격은 2개월 연속 하락

- 일본 9월 가계실질소비는 전년동월비 1.8% 증가한 30.3만엔. 이번 결과는 기저효과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세부항목 중에서는 자동차 지출이 호조
- 10월 FAO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비 하락(128.5→126.4). 곡물, 육류, 유제품, 설탕 등이 하락한 반면 유지류 부문은 상승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10일 현지시각 기준)

- 유로존 11월 섀틱스 투자자신뢰,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의견 요약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AI 버블의 본질, 유동성 과잉과 레버리지, 그리고 투자자 광기 - Financial Times

(Beware the three Ls: Leverage, liquidity and lunacy)

- 기술주 주가 조정으로 AI 버블 논쟁이 확산되는데, 그 이면에는 과도한 레버리지, 충분한 유동성, 투자자 광기가 존재. 현재 유동성은 양적긴축(QT) 중단 예상, 낮은 실질금리, 재정부양 등으로 여전히 풍부. 가계·비금융기업의 레버리지는 안정적이나 AI 벤처, 정부, 사모펀드·대출, 주식 마진거래 등의 위험은 확대
- AI 관련 기업에 대한 고평가, 신용등급 '레이팅 쇼핑' 등 시장 광기를 보여주는 징후도 확산. 연준 풋(put) 기대, 非AI 기업의 견조한 실적, 그리고 AI가 실체가 있는 기술인 점 등을 고려하면 기술주 광풍의 상당 기간 지속도 가능. 다만 레버리지·유동성·광기가 항상 뒤늦게 드러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연준의 통화정책, 단기 대출시장 경색 징후 등으로 양적완화 압력 증가 - Financial Times

(Pressure on the Fed)

- 단기 대출시장 유동성 우려로 양적완화 가능성이 제기. 일례로 대규모 재정적자는 단기 부채로 충당되며, 이를 위해서는 재무부의 일반계정 확대가 요구. 이는 금융시스템에서 유동성을 흡수하여 단기 금리가 상승하는 결과 초래. 결국 국채매입 등을 통한 금융 시스템으로의 현금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 이와 관련된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상시레포금리(SRF), 담보부 익일물 금리(SOFR), 연방기금금리(FFR), 지급준비금 잔액 이자율(IORB) 등의 추이가 중요. 최근 SOFR과 IORB의 스프레드 확대 등 현금 부족 신호가 나타났고, 이는 통화정책 통제력이 약화된다는 의미. 이에 연준의 양적완화를 통한 준비금 확보 필요성이 고조

■ 주요국의 금융 사이클,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 시사 - Financial Times

(The unsettling message for investors from the financial cycle)

- 트럼프 관세정책 충격으로 경기 순환 사이클 파악이 어렵기에 지금은 금융 사이클 분석이 중요. 현재 미국의 금융 사이클은 비교적 양호. 다만 공공부채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을 비롯한 여타 주요국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갈 전망
- 이러한 가운데 다수의 AI 스타트업이 손실을 기록하는 등 일부에서 닷컴 버블 붕괴 이전과 같은 현상이 재연. 이를 감안하면 향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 다만 역사적으로 정책 당국은 금융 호황 대처가 너무 늦고 금융 불황 대응은 과도하여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 초래

■ **중국 금융시장, 글로벌 위험 회피 여건에서도 투자자 신뢰 확보 - WSJ**

(Chinese Markets Defy Global Risk Aversion in Sign of Confidence)

- AI 버블 우려로 美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 주요 주가지수는 약 4년래 최고치. 또한 위안화 가치는 주요 교역국 통화 대비 4월 이래 최고 수준.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중국의 기술 독립 추진 성과 기대, 중국 기업의 MSCI 지수 편입 증가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었다고 평가
- 또한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강세 전망,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성장 등도 주요 긍정적 요인으로 거론(Goldman Sachs). 인민은행의 유동성 지원과 계절적 특성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국채에 대한 강력한 수요도 이어질 소지. 다만 美中 무역갈등 재점화 가능성, 내수부진, 디플레이션 압력 등은 여전히 경계 요인

■ **트럼프 쇼크의 조기 소멸, AI·무역전쟁 회피가 되살린 미국 예외주의에 기인 - 블룸버그**

(The real Trump shock is how quickly it's over)

■ **미국 달러화 변동성, 트럼프 충격 탈피 등으로 低변동 국면 회귀 - Financial Times**

(Dollar volatility tumbles as currency markets move past 'Trump shock')

■ **미국계 비은행 금융기관, 위기 발생 시 대출 축소로 위험 가중시킬 우려 - Financial Times**

(Non-bank lenders may be fair-weather fri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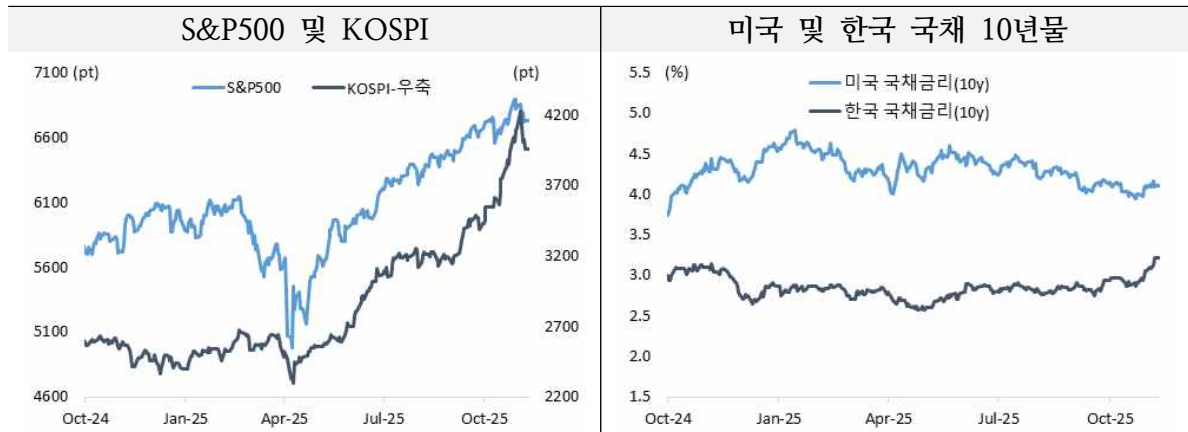
■ **미국, 對中 무역 휴전 중 실질적 타협 모색과 입지 강화 노력 등이 요구 - 블룸버그**

(US-China Trade Truce Is an Opening for Progress)

■ **최근 신흥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선진국보다 빠른 금리인하 가능 여력 시사 - 블룸버그**

(Rare Inflation Flip Gives Emerging Markets Edge on Rich Nation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